

[경남소식]농어촌공사 경남, 폐전자제품 850kg 재활용 등

등록 2025.07.30 23:19:22



[창원=뉴스시스]농어촌공사 경남본부, 폐전자제품 850kg재활용으로 ESG 경영 실천.(사진=농어촌공사 경남본부 제공) 2025.07.30.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스시스] 김기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손영식)는 30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폐 전기·전자제품 850kg를 수거해 친환경 시설을 통해 재활용하며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경남지역본부는 경상남도과 작년 3월 폐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 회수·재활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제로웨이스트,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청사 내 폐전기·전자제품 수거함 운영을 시작하며,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 850kg을 수거했다.

수거한 폐전기·전자제품은 비영리 재활용업체인 E-순환거버넌스에 인계해 재활용했으며 수거를 통해 발생한 소정의 금액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했다.

◇휴롬, 경남적십자사 통해 집중호우 피해지원 1억 원 기부



[서울=뉴스시스] 조수정 기자 = 김재원 휴롬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영양학회와 휴롬이 함께하는 '생애전주기 채소·과일 섭취 국민건강 프로젝트' 기자간담회에서 취재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19. chocystal@newsis.com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회장 박희순)는 (주)휴롬(대표이사 김재원)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산청군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1억 원의 기부금을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을 위로하고, 조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태고자 마련됐다.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를 통해 재해 구호 활동 및 피해 복구 지원에 사용된다.

한편, (주)휴롬은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녹즙기, 원액기, 음식물처리기 등을 제조 및 도매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지난 2021년에도 산청군 지역 경로당 345개소에 1억 3000만 원 상당의 주방가전

제품과 성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에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